

신년사

존경하는 매립협회 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흰소의 해”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주변 상황에서도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현장 일선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신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업계는 부족한 매립시설로 인해 내우외환의 이중고를 겪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재활용 방치폐기물 및 수해 폐기물 등을 적극 처리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의 불안감 가중과 목전에 다가온 공공시설 특별법 실체 등으로 제도권을 향한 우리의 주장과 목소리 전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회원사 여러분의 단결을 바탕으로 정부·지자체 간 공조 및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국가 기반시설 역할에 충실하되 업계의 애환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낸 만큼 올해도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회원사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이 더욱 행복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元杻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회장 이인석 배상